

나주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총력

에너지·기초과학 연구 최첨단 장비
인천·춘천 등 5개 지자체와 경쟁
김유중 박사 초청 정책아카데미 개최
스웨덴 업체와 MOU 등 유치 속도

한전공과대학 설립지로 확정된 나주시가 대학 연구단지에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1조원 대 규모로 알려진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전에는 나주시와 경기도, 충북 오창, 인천 송도, 강원 춘천시 등 5개 지자체가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다.

나주시는 호남권에 국가 대형연구시설이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방사광가속기' 유치지 선정시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사광가속기는 짧은 파장의 방사광 빛(X-ray)을 이용해 극미세 가공, 극미세 물체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연구 장비다.

2차전지, 신소재, 반도체 개발 등 에너지 산업 분야는 물론, 물리·화학·생명공학 등 기초과학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수소 저장 재료를 비롯한 친환경 미래 배터리 등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바이러스 DNA구조 분석에 따른 신약 개발, 신세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나노로봇용 초소형 기계부품 제작 등 거의 모든 과학 분야에 필수적인 국가 대형 연구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도 지난해 11월부터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세계 최초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구축·운영 중인 스웨덴 맥스포(MAX-IV)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관련 용역 추진에 이어 지난 29일 김유중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를 초청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이해와 응용'을 주제로 제30회 수요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전문가 특강은 올해 한전공대 설립과 연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의 필요성과 개념, 비전 등을 전체 공직자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중 박사는 이날 강연을 통해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개념과 작동원리 ▲포항 3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PLS-II)현황 ▲PLS-II와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성능 비교 ▲국내외의 주요 동향 ▲사업 유치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에 설명했다.

김 박사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꼭 필요한 국가적 대형연구시설로 지역균형발전, 연구기관 인접성, 운영비 확보성, 인재양성 등을 고려해 최종 유치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주시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



나주시는 지난 29일 김유중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를 초청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이해와 응용'을 주제로 수요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치는 혁신도시, 한전 본사 이전, 한전공대와 버금가는 지역 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든 시민이 일치단결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운영될 시 연간 유입 이용자가 1만여명 이상,

방사광 상주인력은 500여명 이상, 국비지원 운영비는 최대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혁신도시와 한전 본사,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를 품은 나주는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분야 신소재 개발을 위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농어민 공익수당제 올해 첫 시행
나주시, 2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나주시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지역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나주시는 오는 2월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 중,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임업인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시행된 2019년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중,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한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경력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가구 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공익수당위원회의 지급요건 확인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으로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5월과 10월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30만원씩 나주시상품권을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제1회 나주 시민오케스트라 '6월의 왈츠' 공연 모습.

시민오케스트라 재시동... "올해도 감동과 소통 선사"

나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위한 시민오케스트라 공연 프로젝트의 재시동을 건다.

나주시는 시민오케스트라 공연이 사업성과 분석 및 참여단원 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한 평가와 함께 후속 사업에 대한 관심과 요청이 쇄도해 올해 시 예산을 편성, 2020년 시민오케스트라 공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생활문화콘텐츠 활성화 공모에 '신나는 나주 시민오케스트라 공연 프로젝트'를 응모, 사업 선정을 통해 단원 78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운영했다.

특히 총 3회에 걸친 정기공연을 통해 음악을 매개로 감동과 치유,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의 문화행복지수를 높인 데 크게 기여했다.

시는 올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오디션(2월 8일)을 실시해 단원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시민오케스트라는 올해 정기 공연 2회를 목표로 오는 3월 7일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매주 토요일 정기연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안내는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자유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시, 저소득 초·중학생 대상 '드림 드론캠프' 호응



나주시가 지역 저소득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시즌을 활용해 운영하는 '드림(dream) 드론캠프'가 호응을 받고 있다.

드론캠프는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로 꼽히는 '드론'(dron·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아동, 청소년들의 흥미 유발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혁신산단 소재 (주)한국항공조명(대표 안용진)의 후원(1000만원)을 통해 겨울방학기간인 지난 7일부터 31일까지 아동복지시설인 백민원, 금

성원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드론기초입문교육(4회기)을 실시하고 있다.

회기별 주 4회(하루 3시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드론의 원리에서부터 조립과 분해, 비행기술 등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해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갖고 있다.

시는 오는 8월에도 한 달 간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초·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드론캠프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31 제55회 광주일보 절 전국 마라톤대회

2020.3.1.일
AM 8:3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출발

대회개요

- 종 목 | 풀코스, 하프코스, 13km 코스
- 코 스 | 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 출발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13km코스 경유)
→ 서창교(하프코스 반환)
→ 승촌보(풀코스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주요 운영안내

- 지 급 품 | 배번(기록칩 부착), 완주메달, 기록증(완주자), 간식 및 음료
- 개인시상 | 1위~30위까지 시상
- 특별상 | 원양부부상, 포도제닉상
- 단체특전 | 단체상 1~10위 시상(상세사항 홈페이지 참조)

문 의

http://mara.kjmedia.co.kr ☎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전남문화·(사)아시아문화

주관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협찬

광주은행

